

## 古語의 풀이 말

洪 允 杓

(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1. 序 言

이 글은 전문적인 言語 辭典이라고 할 수 있는 古語 辭典에서 표제어에 대해 풀이말을 어떻게 기술해야 할 것인가를 실제의 예문을 통해 제시해 보려는 목적으로 쓰인 것이다. 그러나 이 글은 언어 사전에서 언급되는 辭典學의 전문적인 이론을 세우려 하기보다는, 실제의 한국어 고어 사전을 편찬하게 될 때에 부딪히는 문제점을 제시하여, 앞으로 편찬될 韓國語 古語 辭典의 편찬자들이 고려해야 할 점이 무엇인가를 제시하려는 데에 그 근본 목적이 있다.

이 글에서 언급하는 ‘古語’란 ‘고어 사전’에서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는 ‘고어’의 어휘뿐만 아니라 현대 한국어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고어의 어휘도 포함한다. 현대 국어 사전 속에 포함되는 고어의 어휘에 대한 풀이가 고어 사전의 풀이와 달랐던 것이 현재까지 편찬된 우리 나라 사전의 실정이지만, 한국어 사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고어에 대한 주석은 전문적인 고어 사전의 주석과 달리할 이유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글은 현대 국어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고어에 대한 풀이를 할 때에 고려해야 할 점도 동시에 언급하는 셈이 될 것이다.

### 2. 古語의 概念

고어 사전과 같은 전문적인 사전의 편찬자가 제일 먼저 결정해야 할 일은 ‘古語’의 개념을 어떻게 규정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고어 사전은 그 표제어가 어떻게 선택되는가에 따라 그 풀이말이 달라지게 되기

때문이다.

‘고어’는 일반적으로 ‘현대에는 쓰이지 않는, 지나간 시기에 사용된 언어’로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현대 국어 이전의 지나간 시기에 사용되었던 모든 언어’를 포함한다.<sup>1)</sup> 그러므로 현대 국어에 그 어형이 표기형까지도 그대로 간직한 채, 심지어는 동일한 의미를 지닌 채 사용되고 있어도 그 語形이 이전 시대에 사용되었다고 하면 그 어휘는 고어 어휘인 것이다. 고어 사전에 현대어에도 사용되고 있으면서도, 옛날에도 사용되었던 어형을 모두 포함시켜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현재까지 편찬된 고어 사전<sup>2)</sup>에서는 현대 국어에서도 사용되지만 그 표기가 현대 국어의 표기와 달리 나타나는 것은 표제어로 등록을 하였으며, 그 표기가 동일한 것은 대부분이 표제어에서 제외시키고 있다.<sup>3)</sup> 예컨대 ‘人’을 의미하는 단어가 현대 국어 이전의 지나간 시기의 문헌에 ‘사름’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으며, ‘사람’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등재되어 있지 않다. ‘하늘, 하늘’ 등도 동일한 관계에 있다. 실제로 ‘사름, 사람’과 ‘하늘, 하늘’은 그 단어의 변화를 보이는 예인 것이며, 또 ‘사람’과 ‘하늘’은 19 세기의 문헌에 나타나는 어형인 것이다.

기존의 고어 사전에서는 이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음에도 그 태도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예컨대 ‘하늘’을 표제어로 채택하고 아울러 현대 국어의 표기와는 다른 ‘하늘ㄷ래, 하늘ㄷ리, 하늘탈이, 하늬ㄷ래, 하늬ㄷ랫불휘’ 등도 표제어로 채택하고 있다. 반면에 현대 국어의 표기와 동일한 ‘하늘타리’도 등재되어 있다. ‘하늘’은 실렸으며, ‘하늘’은 실리지 않은 태도와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하늘타리’는 제외하여야 옳을 것이다. 이러한 예는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가다[去], 가문(家門), 가마[釜]’로부터 ‘힘줄[筋]’에 이르기까지 그 예는 수다하다.

고어 어휘를 포괄하여 실는 현대 국어 사전의 편찬에서는 그리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전문적으로 고어만을 다루는 고어 사전에서 현대 국어

1) 이 때에 ‘지나간 시기’의 국어란 國語史의 時代 區分에서 현대 국어 이전의 시기를 말한다. 따라서 ‘지나간 시기에 사용되었던 국어’는 구체적으로는 현대 국어 이전의 국어, 즉 19 세기말까지의 국어를 말한다.

2) 현재까지 편찬된 고어 사전에는 方鍾鉉(1946, 1947), 鄭泰鏞·金炳濟(1948), 鄭熙俊(1949), 이상춘(1949), 이영철(1953), 南廣祐(1960), 劉昌惇(1964) 등이 있으나, 현재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은 劉昌惇(1964)과 南廣祐(1960)인 것으로 보인다.

3) 이 글에서 예시하는 고어 사전은 주로 南廣祐(1960)와 劉昌惇(1964)이다.

와 어형, 의미가 동일한 어휘까지도 표제어로 실리는 사전을 편찬하기란 현실적으로 그리 수월한 것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현대어 사전과 중복되는 어휘 항목이 방대함으로 인해서, 그 사전의 성격이 매우 모호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지금까지의 고어 사전이 그러한 태도를 견지한 것은 어느 정도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태도가 견지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이 필요하다. 고어로서의 '사람'이란 표제항은 없으면서도 고어로서의 '가다'란 표제항은 사전에 올리는 등의 태도는 객관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객관성을 유지하고 또 고어 사전이 지니는 역사적, 문헌적, 실증적인 성격을 고려하여서, 현대 국어와 동일한 어형, 의미,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나간 시기에 사용했던 모든 어휘를 고어 사전의 표제항에 올려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대 국어에서 사용되고 있는 어휘들이 언제 어떠한 문헌에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제시해 주기 위해서도 그 형태와 아울러 실제의 예문들이 제시되어야 하겠기에, 현대 국어와 동일한 어휘라 하더라도 가능한 한 표제항 속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현대 국어 사전에서는 현대 국어의 표기법과 의미가 동일한 고어 어휘는 그 풀이에서 그 어휘의 역사를 기록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그 어휘가 언제부터 쓰이기 시작하였는가 하는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漢字 語彙도 동일한 범주에 속한다. 한자 어휘지만 이것이 한글로 표기된 것은 표제어로 등재시키되, 한자로 쓴 것은 제외한 것이 현용 고어 사전의 일반적인 현상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태도는 국어를 한자를 빌려 쓴 표기(예컨대 吏讀 등)도 고어 사전에 올리는 태도와 어긋난다. 이 두의 표기를 빌린 어휘도 국어 어휘라면, 한자를 빌려 쓴 漢字語도 국어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물론 한자로 쓰인 한자 어휘가 순수한 국어 어휘인지 아니면 중국어 어휘인지 하는 검증과, 한자어를 실린다면 그 당시의 한자음에 따라 배열할 것인지 현대의 한자음에 따라 배열하여야 할 것인지의 결정이 용이한 일은 아니겠지만 위에 제시한 이유로 인해서 한자로 표기된 한자 어휘도 고어 사전에 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sup>4)</sup> 한자어를 표제어로 실는다면, 특히 현대 한자음대로 배열하여 실는다면, 그 풀이에서

4) '李朝語 辭典'의 序文에는 漢字 表記語를 다 실을 예정으로 원고를 작성하였지만, 분량 관계로 漢字語 表記語는 별도 간행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다. 그러나 아직 이러한 사전은 출판되지 못했다.

크 당시의 한자음은 물론 그 성조까지도 표기해 주어야 할 것이다

### 3. 古語의 풀이말 內容

고어 사전 풀이말의 구조, 즉 고어 사전의 미시 구조에 대해서는 아직 정밀하게 논의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현대 국어 사전과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기존의 고어 사전 중 劉昌惇(1964)의 풀이말 구조를 살펴보면 (1가)~(1마)에서 보는 바와 같은 몇 가지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그 구조상의 큰 차이는 없다.

- (1) 가. 표제어 (품사) 현대 국어 대응어 \*예문<출전>
- 나. 표제어 (품사) 의미 풀이 \*예문<출전>
- 다. 표제어 (품사) 현대 국어 대응어[한자로 풀이] \*예문<출전>
- 라. 표제어 (품사) 의미 풀이[한자로 풀이] \*예문<출전>
- 마. 표제어 (품사) 의미 풀이 →참고 항목 \*예문<출전>

즉 劉昌惇(1964)에는 표제어, 문법 정보(품사), 의미 풀이(또는 현대 국어 대응어), 뜻풀이에 대한 한자로의 해석( [ ] 안에 표시), 참고 표제어 표시(→로 표시), 예문(\*표로 표시), 출전(< >로 표시) 등이 보일 뿐이다. 다른 문법 정보나, 형태소 분석, 어원 표시, 형태의 변화 표시, 의미 변화의 표시, 死語나 廢語의 표시, 유의어나 반대어, 관용구 등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고어 사전의 풀이말에 들어갈 내용은 위의 내용 모두를 포괄하는 다음과 같은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즉 표제어의 다음에

- (1) 품사 표시 및 문법 정보
- (2) 발음 표시
- (3) 형태소 분석의 내용
- (4) 어원 표시
- (5) 고유어 차용어의 표시
- (6) 형태 변화의 표시
- (7) 표제항 상호 관계 표시
- (8) 현대 국어 대응어
- (9) 의미 표시(자세한 의미 풀이)
- (10) 의미 변화의 표시



- (11) 반대어
- (12) 유의어
- (13) 관용구
- (14) 死語 또는 廢語 표시
- (15) 예문
- (16) 출전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한국어의 고어에는 발음 표시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 경우라도 非自動的 交替를 보이는 것들에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 위에 제시한 16가지의 사항들을 어떠한 순서로 배열하여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필자로서는 아직 정리되지 못한 상태에 있다. 다만 서로 상관성이 있는 것끼리 같이 배열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4. 品詞 表示 및 文法 情報

품사 표시는 지금까지 국어 사전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법을 따라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동일한 형태, 동일한 의미를 지닌 어휘가 품사의 기능을 달리할 때에는 이를 한 표제항 속에서 품사 표시만 달리해주고 그 예만 들어 주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다른 표제항으로 처리해야 할 것인지 하는 문제가 생길 것이다. 예컨대 ‘조초’가 이러한 경우에 속한다. 劉昌惇(1964)에서는 이를 각각 다른 품사로 보아서 하나는 부사로, 또 하나는 토씨로 처리하여 표제항을 달리하고 있다.

(2) 가. 조초 : (부) 따라 \* 龍을 조초 잇도다

나. -조초 : (토) -대로 \* ㅁ슴조초 이룰 ㅎ기 호리라

(2가)를 ‘쫓다’의 활용형으로 처리하면 (2가)의 표제항은 없어질 것이지만, ‘-오’는 일반적인 활용 어미의 유형이 아니다. 그래서 부사로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를 한 語基로부터 파생된 것인지 아닌지 하는 것인데, (2가)와 (2나)는 한 어기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아서 한 표제항 속에서 처리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이와 유사한 예로서 ‘더브러’가 있다.

(3) 가. 니시 남진의 형의 ㅅ를 더브러 사더니 <東新 續烈 20b>

나. 겨짐 더브러 닐오더 <東新 續孝 31b>

다. 손을 잡고 더브러 니별하야 꼴오더 <東新 烈七 87b>

(3가)는 물론 동사 ‘더블다’의 활용형이므로 ‘더블다’에서 활용형의 예

만 제시해 주면 될 것이다. 그러나 (3나)와 (3다)는 다른 상황에 있다. 즉 (3나)는 조사의 기능을, 그리고 (3다)는 오히려 부사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문헌에 등장하는 예들을 엄밀히 분석하여 그 품사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3가)~(3다)는 그 어기는 동일하다. 또한 그 기본 의미도 차이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 따라서 (3가)는 별도의 표제어로 하되, (3나)와 (3다)는 동일 표제어로 다루고 그 품사의 차이에 따른 설명과 예시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품사 표시, 특히 동사의 표시에서 문제가 되는 점은 자동사와 타동사의 구별이다. 특히 중세 국어 및 근대 국어에는 소위 능격 동사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의 구별에 어려움이 따르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자동사로 쓰일 경우와 타동사로 쓰일 경우를 구분하여 품사 표시를 하여 주고, 이에 대한 예시를 해야 할 것이다. 이 자동사와 타동사의 구별에 대한 문제점은 지금까지 많은 논의가 있어 왔으므로 여기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sup>5)</sup> 품사로 분류되지 않는 문법 형태소들, 예컨대 어미나 접사들이나 복합 명사, 복합 동사들도 별도의 표시가 필요하다.

어느 어휘가 가지고 있는 문법적인 구조, 예컨대 구문의 유형을 표시해 주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아직도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로 남긴다. 사전 이용자들의 언어 직관이 미치지 못하는 지나간 시기의 국어에 대해 그 어휘가 지니는 통사 구조 등을 표시해 주는 일은 사전이 지니고 있는 학문적 목적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개별 어휘에 대한 통사 구조에 대한 연구가 매우 미미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너무 부분적인 문장의 유형만을 제시해 줄 염려가 있기에 아직은 유보해 두는 편이 나을 것으로 생각한다.<sup>6)</sup>

## 5. 固有語 借用語의 表示와 語源 表示

표제항으로 등록된 어휘가 고유어인가 차용어인가를 밝혀 주는 일은 그 어 사건의 풀이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차용어일 때에는 어느 언어의 어느 형태로부터 차용된 것인지를 밝혀 줌으로써 어원까지도 표시해 주는

5) 사전에서의 자동사와 타동사의 표시에 대한 문제는 홍재성 교수의 일련의 논문이 참고가 될 것이다.

6) 최근에 이 문제를 제기하고, 개개 어휘의 문장 유형을 검토한 것에 李賢熙(1991)가 있다.

결과를 얻을 것이다. 물론 어원은 알타이어와 연관을 가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고유어는 그 어휘의 형태와 의미의 변화사를 보이는 자체가 어원의 설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자어는 그 한자를 표시해 주는 일도 어원에 대신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 6. 形態素 分析和 形態의 變化 表示

사전의 풀이에서 하나 이상의 형태소로 구성되어 있는 표제어는 그 표제어를 구성하는 형태소를 분석하여 표시해 줌으로써 사전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줄 수 있을 것이다. ‘고키리’를 ‘고+ㅎ+길-이’로, ‘여어보다’는 ‘옛-+-어+보-’ 등으로 표시하여 줄 수 있다. 그러나 그 분석이 분명하지 않은 것을 무리하게 분석하여 오히려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것은 그 분석을 일단 보류해 두고 뒤의 연구를 기다리는 것도 오히려 사전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현용 고어 사전에는 이러한 분석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의미 해석이나 형태소 분석에 어려움이 많다.

표제항의 형태사를 볼 수 있도록 설명 및 풀이를 해 주는 것도 고어 사전의 필수 조건이라 할 수 있다. 그래야만, 소위 형태사나 음운사 등을 알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물[水]’은 ‘물>물’로, ‘끓다’는 ‘점다>끓다’ 등으로 표시해 주거나 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그 변화의 시기나 변화의 시초를 보이는 문헌을 제시하여 준다면 더욱 알찬 풀이가 될 수 있을 것이나, 개별 어휘에 대한 형태사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러한 표시의 요구는 아직 무리한 요구일 수도 있다. 또한 ‘피오다, 휘오다, 휘우다, 피우다’ 등처럼 어느 것이 이전형이며 어느 것이 후대형인지 알 수 없어서 논의를 더 해야 할 것들은 보류해 두는 편이 낫다.

## 7. 現代 國語 對應語 表示

고어 사전이나 방언 사전은 그 표제항의 선택 양상에 따라 그 풀이말이 달라지게 된다. 예컨대 고어 사전에 ‘사릅’이라는 단어와 ‘사람’이라는 단어가 다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사릅’은 현대 국어로 대역하여 ‘사람’이라고 풀이해도 표제어와 풀이말이 동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사람’이라는 고어를 ‘사람’이라고 현대말로 대역만 한다

면, 표제항과 풀이말이 같아지는 문제점이 생긴다. 이 때에는 풀이에서 일정한 기호나 부호를 사용하여, 고어의 '사람'이 현대 국어의 '사람'과 동일하다는 것을 표시해 주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사람 : ≡사람' 등으로 표시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한편 고어 어휘의 풀이를 '사름' 또는 '사람'을 현대 국어에 대응되는 '사람'으로만 풀이하는 경우와 현대 국어 사전에서 풀이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과에 속하는 포유 동물……" 등으로 풀이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만약에 현대 국어 사전에서처럼 '사람'과 '사름'이 다른 표제항으로 실려 있을 때에는 '사람'은 "사람과에 속하는……" 등의 풀이를 해 주고, '사름'은 단지 '사람'이라고만 풀이해 주면 될 것이다. 사전 이용자는 '사름'을 찾아서 다시 '사람'으로 가 보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어 사전에도 그러한 풀이 방식을 택한다면, 사전 이용자는 고어 사전과 현대 국어 사전을 동시에 갖추어 놓아야 하는 불편함을 겪게 될 것이다.<sup>7)</sup>

만약에 현대 국어에 동음이의어가 있는 어휘이거나 언뜻 보아 그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劉昌惇(1964)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인 (4)의 예처럼, 대응되는 현대 국어의 어휘로 풀이한 후에 [ ] 속에 한자를 써서 그 의미를 밝혀 주는 방법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4) 가. 갈다 : 가르다[分]

나. 낳젓 : 날젓[生乳]

그러나 고어 사전의 풀이말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사름'을 '사람'이라고 풀이한 후에 다시 이를 "사람과에 속하는……" 등으로 자세히 풀이하는 것이다.

설령 사전 이용자가 고어 사전과 현대 국어 사전을 동시에 갖추어 놓고, 고어 사전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문제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즉 어느 고어 어휘가 현대 국어에서는 이미 사멸되어 사용되지 않거나, 그 형태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의 표기법을 현대 국어 표기법에 대응시켜 바꾸어 놓은 경우가 곧잘 발견되는 것이 그 한 예이다. 실제로 현용 사전(이조어 사전)에서 그러한 예를 찾아 보도록 한다.

(5) 기르마가지 : 기르마가지

(7) 劉昌惇(1964)에서는 그 범례에 "단어 풀이는 매우 간략히 하였으니 현대어 사전을 참고하기 바람"이라고 제시하고 있어서 고어 사전과 현대어 사전을 동시에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5)의 풀이말인 ‘기르마가지’는 현대 국어 사전에는 표제항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면 ‘기르마가지’의 의미는 다시 고어 사전에 실린 예문을 통해서 사전 사용자가 직접 찾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 어휘는 이미 현대 국어에서 ‘길마가지’로 변화한 것이기 때문에 그 풀이를 ‘길마가지’로 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길마가지’의 풀이말 뒤에 다시 부연하여 ‘길마의 맨 위’ 정도의 풀이는 해 주는 편이 친절한 사전이 될 것이다.

음운 변화를 겪은 형태로 그대로 바꾸어 놓아서 일어난 문제도 있다. 또 예를 들어 보자.

(6) 가. 밋티다 : 매치다

나. 음속하다 : 음속하다

(6가)에서는 현대 국어 맞춤법에 맞게 ‘맷티다’로, (6나)에서는 ‘음속하다’로 풀이해야 할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현대 국어에 존재하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현대 국어의 대응어를 제시하지 않고, 이를 친절하게 풀이한 항목도 있다.

(7) 근피 : 구두 뒤축 안에 대는 가죽

(7)은 ‘신’을 그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구두’로 설명한 것도 문제지만, 풀이말의 앞에 친절하게 현대 국어의 ‘근피(跟皮)’라는 단어를 써주고 설명해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것은

(8) 근심 : 근심

처럼 풀이한 것과 상치된다. ‘근피’가 난해한 단어이어서 그렇게 풀이했다는 변명은 허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견줄’은 ‘수건과 빗’으로 풀이하지 않고 ‘巾櫛’로 풀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 8. 意味의 表示

고어 사전에서 기본적인 의미를 어떻게 결정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현대어 사전에서 그것을 어떻게 결정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빈도수로 결정하는 문제도 문헌 자료의 편중성 때문에 심각히 고려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

고어 사전에서 의미 풀이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실제의 예를 통하여 보도록 한다.

- (9) 가. 조급 : 躁急  
나. 밀어 : 密魚
- (10) 가. 밋싸치 : 本產物  
나. 부하 : 肺
- (11) 가. 민스승 : 元스승  
나. 부화 : 부아. 肺
- (12) 가. 달히다 : 달이다[煎]  
나. 부테 : 부처[佛]  
다. 부터 : 부처[佛]
- (13) 부처 : →부터
- (14) 브스와음 : 북새 놓음[브스왜음]
- (15) 부터손 : 부처손[卷栢科植物]
- (16) 부억지 : 아궁이 바닥의 오래된 재나 흙

(9)는 표제어를 그 표제어의 한자음에 해당하는 한자로 풀이한 것이고, (10)은 표제어를 표제어의 한자음이 아니라 의미에 해당하는 한자어를 써서 풀이한 것이며, (11)은 한자와 한글을 섞어서 풀이한 것이며, (12)는 현대의 단어로 풀이한 후에 [ ] 안에 다시 이의 의미에 해당하는 한자로 풀이한 것이며, (13)은 풀이를 하지 않고 참고 항목으로 가 보라고 지시한 것이며, (14)는 한글로 풀이한 후에 참고되는 항목을 →가 아닌 [ ]를 사용하여 그 속에 관계 있는 항목을 표시한 것이고, (15)는 (12)와는 달리 표제어의 의미에 해당하는 한자를 쓰지 않고, '부처손'에 대한 설명을 [ ] 속에 한자로 표시하였는데, (14)와도 다른 풀이의 일종이다. (16)은 현대 국어 사전에서 사용하는 풀이를 한 예이다.

이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풀이를 한 것은 우선 이 사전에서 풀이할 풀이말을 통일시키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우선 의미의 풀이 방법도 통일시켜야 하는 것이 고어 사전에서의 급선무인 것처럼 보인다. 물론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16)의 방법이다. 그러나 (16)도 (17가)처럼 하지 말고 (17가)처럼 현대국어에 대응하는 단어를 써 주고 설명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 (17) 가. 기추 : 騎射  
나. 기추 : 기사(騎射), 말을 타고 달리면서 활을 쏘는 것

그러나 모든 표제어를 이렇게 풀이한다면, 고어 사전은 무척 방대한 분량의 것이 될 것이다. 즉 의미는 동일한데, 그 표기가 다른 항목들 하나하

나에 모두 똑같은 풀이를 한다면, (18)에서처럼 동일한 풀이말이 되풀이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18) 가. 밋브다 : 미쁘다, 믿음성이 있다. 미덥다.

나. 밋부다 : 미쁘다, 믿음성이 있다. 미덥다.

다. 미쁘다 : 미쁘다, 믿음성이 있다. 미덥다.

이렇게 되풀이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19)에서 예시한 것처럼 이 중 어느 한 어휘에만(예컨대 ‘밋브다’) (18)과 같은 뜻풀이를 해 주고 나머지의 ‘밋부다, 미쁘다’에는 단지 ‘미쁘다’라고만 풀이를 해 주어도 될 것이다. 그리고 잊어서는 안 될 것은 후술한 바와 같이 이들 어휘간의 상관 관계를 표시해 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19) 가. 밋브다 : 미쁘다, 믿음성이 있다. 미덥다.

나. 밋부다 : 미쁘다, → 밋브다.

다. 미쁘다 : 미쁘다, → 밋브다.

고어 사전에는 뜻풀이가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다.<sup>8)</sup> (20)에 몇 개의 예를 들어 보도록 한다. 우선 ‘긔’의 순서에 들어가 있는 몇 개만 들어 보도록 한다. (왼쪽의 것이 수정될 원래의 뜻풀이이고, 오른쪽 것이 수정된 결과다.)

(20) 가. 긔절하다 : 명령하다 | 처치하다, 수배하다.

나. 긔우하다 : 피하다 | 꺼리어 싫어하다.

다. 긔이다 : 忌하다 | 숨기다, 감추다.

라. 긔수 : 껌새 | 관심을 두다.

이와 같이 현용 고어 사전에는 그 뜻풀이가 잘못된 부분이 허다하다. 따라서 정확한 뜻풀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대에 존재하지 않는 사물을 의미하는 어휘가 있을 경우에는 현대 국어 사전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림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용 고어 사전에는 그 의미를 알 수 없어서 풀이말이 들어갈 자리를 빈칸으로 남겨두고 예문만 제시한 것도 많다. 물론 아직 해독되지 않은 것을 억지로 풀이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빈칸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오히려 솔직하게 ‘미상’이라고 밝혀 주어야 할 것이다.

(8) 이조어 사전의 뜻풀이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지춘수(1969)에 자세히 언급해 놓고 있다.

## 9. 意味 變化의 表示

어느 어휘는 의미 변화를 겪은 것이 있다. 이 의미의 변화도 풀이말에 제시해 주어야 한다. 의미 변화를 겪은 어휘의 풀이에 그 의미가 변화하였음을 표시하여 주지 않고 단지 표제항의 표기만을 현대 국어의 표기만으로 바꾸어 놓는 방식의 풀이를 한다면 사전 이용자들은 그 의미 해독에 커다란 혼란을 겪을 것이다. 다음에 의미 변화를 겪은 어휘를 고어 사전에서 어떻게 풀이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한다.

- (21) 성가서다 : 파리하다
- (22) 구획여 : 구태여
- (23) 마노라 : 상전, 임금, 아내
- (24) 마르치다 : 가르치다[敎]
- (25) 마르치다 : 가리키다[指]

(21)은 뒤에 제시한 예문이 사용된 당시의 의미대로 풀이한 것이며, (22)는 그 당시의 의미가 현대 국어에서의 의미와 다름에도 불구하고 현대 국어의 의미로 잘못 풀이한 것이며, (23)은 그 의미가 변화한 대로 모두 등재한 것이다. 반면에 (24)와 (25)는 ‘마르치다’가 그 당시에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항목을 따로 하여 풀이를 한 것이다.

어느 한 시기에 한 어휘가 한 가지 이상의 의미를 가진 것이 있는가 하면, 어느 어휘는 한 시기에는 한 가지 의미를 가지다가 역사적으로 변화한 것이 있다. (24)-(25)의 ‘마르치다’가 전자에 예이고, (21)~(23)은 후자의 예이다. 이러한 변화도 (27)~(29)의 예처럼 구별하여 표시해 주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도 형태 변화의 예처럼 그 의미가 변화한 시기나 변화되어 쓰인 문헌명을 제시하여 주면 더욱 바람직할 것이지만, 아직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다.

- (26) 마르치다 : ① 가르치다[敎] [例文]  
                  ② 가리키다[指] [例文]
- (27) 성가서다 : 파리하다, 성가시다, 파리하다>성가시다  
                  ① 파리하다 [例文]  
                  ② 성가시다 [例文]
- (28) 구획여 : 받드시, 구태여, 받드시>구태여  
                  ① 받드시 [例文]



## ② 구태여 [例文]

(29) 마노라 : 상전, 임금, 아내. 상전 &gt; 임금 &gt; 아내

## ① 상전 [例文]

## ② 임금 [例文]

## ③ 아내 [例文]

즉 (24) (25)의 경우에는 이를 한 표제항 속에 넣어서 그 풀이말에 ‘①가 르치다 ②가리키다’ 등으로 풀이를 해 주어야 한다. 후자의 경우에도 각각 표제항을 달리하지 말고 그 의미 변화를 표시해 주면 될 것으로 생각한다. (23)처럼 그 변화된 의미만을 나열해 놓는다면 다의어를 표시한 다른 항목과 그 체제가 맞지 않을 것이다.

## 10. 標題項 相互關係 表示

고어 사전의 편찬에서는 현대 국어 사전의 편찬에서는 볼 수 없는 큰 문제점에 봉착하게 된다. 표제항의 다양성이 바로 그것이다. 즉 현대 국어 사전에서는 표제어를 한글 맞춤법에 따라 표기하여 배열한 것이지만, 고어 사전은 이러한 맞춤법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표기법에 따라 표기된 것이 많기 때문에, 그 어형은 나타나는 환경에 따라, 시대에 따라, 문헌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게 마련이다.

예를 들어 보도록 한다. ‘굴다’ [同]라는 단어는 그 분포에 따라, ‘ㄹㅌ니, ㄹㅌ니, ㄹㅌ니, ㄹㅌ’ 등으로 표기되기도 하고, 문헌이나 시대에 따라 ‘ㄹㅌ니, ㄹㅌ니, ㄹㅌ’ 등으로 표기되기도 한다. 이것들을 사전에 등재할 때, 사전 [편찬자는 표제항으로 어느 하나(예컨대 ‘굴다’)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나타나는 대로 여러 가지 형태를(예컨대 ‘ㄹㅌ다, ㄹㅌ다, ㄹ다, ㄹㅌ다, ㄹㅌ다’ 등) 모두 표제항으로 등재시킬 것인가 하는 점을 결정해야만 할 것이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하나는 (30)의 예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들을 한 표제항 속에 포함시키는 것이며, 또 하나는 이들을 각각 다른 표제항으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각각 다른 표제항으로 독립시키는 경우에도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 하나는 (31)처럼 각 표제항에 해당하는 표기형의 아래에 풀이말을 따로따로 해 주고 동시에 그 예문도 이 표제항의 아래에 실리는 것이며, (그리고 대표되는 항목을 참조하라는 표시도 동시에 해 준다.) 또 하나는 (32)처럼 그 중 어느 한

표기형을 대표로 삼아 다른 표기형들의 곡용형, 활용형들을 이 대표형의 아래에 싣고, 그 대신 대표형으로 채택되지 않은 것들의 표제항은 그 풀이에서 대표로 잡은 표제항으로 가 보라는 표시를 해 주는 것이다(물론 이 경우에 '같다'란 풀이를 해 주지 않을 수도 있다).<sup>9)</sup>

## (30) 같다 : 같다

- ① 같다 \*이통함을 얻은 마티 하야 <孝六 21b>
- ② 같다 \*이운 남기 엇루시 어의 얼굴이 곧거늘 <孝一 6b>
- ③ 다다 \*스스로 주금만 대디 묻하다 하더니 <烈七 31b>
- ④ 다다다 \*황시 대디 하더라 <烈一 54b>
- ⑤ 다다다 \*두던늘 대하야 우다가 <烈一 86b>

## (31) 가. 같다 : 같다 \*이통함을 얻은 마티 하야 &lt;孝六 21b&gt;

- 나. 같다 : 같다 \*이운 남기 엇루시 어의 얼굴이 곧거늘 <孝一 6b>→같다
- 다. 다다 : 같다 \*스스로 주금만 대디 묻하다 하더니 <烈七 31b>→같다
- 라. 다다다 : 같다 \*황시 대디 하더라 <烈一 54b>→같다
- 마. 다다다 : 같다 \*두던늘 대하야 우다가 <烈一 86b>→같다

## (32) 가. 같다 : 같다

- \*이통함을 얻은 마티 하야 <孝六 21b>
- \*이운 남기 엇루시 어의 얼굴이 곧거늘 <孝一 6b>
- \*스스로 주금만 대디 묻하다 하더니 <烈七 31b>
- \*황시 대디 하더라 <烈一 54b>
- \*두던늘 대하야 우다가 <烈一 86b>

- 나. 같다 : 같다. →같다
- 다. 다다 : 같다. →같다
- 라. 다다다 : 같다. →같다
- 마. 다다다 : 같다. →같다

이들 다양하게 나타나는 한 형태의 다른 표기들을 한 표제항 속에 넣고 그 곡용형이나 활용형을 제시해 주는 방법을 따른다면 국어사 연구자들은 어느 정도 사전을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겠지만, 일반 사전 이용자는 문헌에 나타난 표기만을 대상으로 하여 사전을 활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 활용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31)과 같은 풀이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방법은 후술할 (34)의 방법일 것이다.

현용 고어 사전에서는 대개 후자의 방법에 따라 표제항을 달고 있는데,

9) 이 예는 '東國新續三綱行實圖'의 예이다.

풀이말에서 이들 다른 어형들의 관계를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어서, 이들 모두가 서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인식될 수 있다.

고어 사전에서는 몇 예들에서 이러한 방법으로 표시해 준 것들이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 한정된 소수의 어휘에만 표시해 주고 있고, 그것도 관련 있는 어휘 각각에 따로따로 표시해 준 것이 아니라, 어느 관련 있는 한 어휘에만 표시해 주고 있어서 이들 어휘들 간의 상호 관계를 알기 어렵게 되어 있다. 한 예를 보도록 하자.

(33) 가. 무히다 : (동) 불 때다 → 무희다(예문 생략, 이하 마찬가지임.)

나. 무희다 : (동) 때다

다. 무휘우다 : (동) 불때다

즉 ‘무히다’에는 ‘→무희다’란 표시를 하고 있다. 즉 ‘무희다’를 가 보라는 뜻으로 보인다.<sup>10)</sup>

‘무희다’에는 ‘→무히다’의 표시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무휘다’, ‘무휘우다’란 항에도 여전히 그것은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들 어휘들은 실제로 서로 연관성이 있는 것들이다. 따라서 이들 모두에게 각각 상관이 있으니, 어느 항을 참조해 보라는 표시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다음과 같이 상관성을 표시해 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34) 가. 무히다 : (동) 피우다 —무희다, 무휘다, 무휘우다 (예문은 생략)

나. 무희다 : (동) 피우다 —무히다, 무휘다, 무휘우다 (예문은 생략)

다. 무휘다 : (동) 피우다 —무히다, 무희다, 무휘우다 (예문은 생략)

라. 무휘우다 : (동) 피우다 —무히다, 무희다, 무휘다 (예문은 생략)

이러한 방법은 ‘天’을 의미하는 ‘하늘’이 ‘하날, ㅎ날, ㅎ날, 하늘’ 등으로도 표시될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러한 표시는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 예컨대, ‘서울:서울’, ‘므읏:므읏’, ‘언덕:언덕’, ‘손소:손조’, ‘손가락:손싸락:손ㅁ락:손ㅂ락:손고락’, ‘일ㄷ다:잇ㄷ다:일쫘다:일쫘다’, ‘뵤오다:뵤오다:뵤오다:뵤우다’, ‘오히려:외히려’, ‘좌우:자우’, ‘어엿비:에엿비’, ‘버히다:베히다’, ‘땡글다:땡글다:땡길다:땡돌다’ 등 수많은 어휘들이 이에 해당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밝혀진 것은 가능한 한 표시해 주

10) 그러나 이 화살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범례에서도 설명해 놓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 ‘무히다’, ‘무희다’, ‘무휘다’, ‘무휘우다’는 모두 ‘불때다, 때

다’로 설명되어 있으나, 이것은 ‘피우다’로 고쳐야 할 것이다.

는 친절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11. 反對語, 類義語, 慣用句의 表示 및 死語의 表示

사전에서 고어 어휘에 대한 반대어를 찾아서 풀이말에 올린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 중의 하나일 것이다. 현대 국어에 대한 것도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더욱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것들은 기록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용구는 있을 경우에 속담 등을 이용하여 그 출전을 밝히면서 제시해 주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어가 된 어휘들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사전에서 표시해 주어야 할 것이다.

### 12. 用例의 提示

고어 사전은 일종의 실증적 용례 사전이어야 할 것이다. 그 어휘에 대한 풍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사전 이용자들에게 제공해 줌으로써 그들의 언어 직관이 미치지 못하는, 지나간 시기의 어휘에 대한 의미 기능 용법 등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겠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증적 용례 사전이 되기 위해서는 그 어휘가 어느 원전, 몇 장에 어떤 의미, 어떤 용법으로 쓰였나를 밝히는 역사적 실증적 원칙에 입각하여 그 예문들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문헌학적 사전이 아니라 언어학적 사전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하여서는 각 문헌에 등장하는 곡용형이나 활용형들을 가능한 한 많이 제시하여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러한 용례들이 등장하게 되면 그 어휘가 내포하고 있는 문장상의 특징(즉 통사 구조 등), 통사 의미, 다의유의 등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다음에 간단히 ‘아니’의 예를 들어 보도록 한다.<sup>11)</sup>

- (35) 아니 : 돈은 재 설워 하디 아니 리 업더라 <孝六 44b> 온식 썸 아니 그르기를  
 <孝六 27b> 집일을 도라 아니 보니라 <孝五 20b> 혼번도 지피 아니가고  
 <孝五 41b> 다 소곰 장을 아니 먹고 <孝五 50b> 어버이 두려 아니 열이니  
 라 <續烈 12b> 아니 오라셔 니산 현감 하니 <續孝 23b> 밥 아니 먹고 죽

11) 이 예는 ‘東國新續三綱行實圖’의 한 문헌에서만 뽑은 것이다. 물론 이 예에서는 한 활용형 또는 곡용형에 한두 예씩만을 든 것이다.



- 다 <續孝 29b> 슬퍼 아니 먹논디 아니라 <三烈 6d> 내 너놀 아니 조초리  
라 하고 <烈八 37b>
- 아녀 : 아히를 안고 졸디 아녀 죽다 <烈八 79b> 꾸짖기를 이피 그치디 아녀  
주그니라 <烈六 2b> 도적글 꾸짖고 굴티 아녀 죽다 <烈四 11b> 최시 버  
으리왔고 졸디 아녀 니로디 <烈四 88b>
- 아녀놀 : 굴티 아녀놀 해를 만나다 <忠一 20b>
- 아녀셔 : 목이 글치디디 아녀셔 날호여 닐오디 <孝六 40b> 오래디 아녀셔 도  
적기 니룩기놀 <烈三 17b>
- 아년디 : 상복을 벌디 아년디 열나몬 히에 니룩다 <烈八 9b>
- 아년거놀 : 그 지아비를 만나 죽디 아년거놀 <三烈 1b>
- 아년터니 : 오히려 죽디 아년터니 <忠一 55b>
- 아년터라 : 셔방 맛디 아년터라 <烈三 47b>
- 아니고 : 죽디 아니고 므서슬 기드로리오 <烈六 71b>
- 아니니 : 크기 꾸짖고 졸디 아니니 <烈八 90b> 힘써 버으리와다 졸디 아니니  
<烈七 7b>
- 아니니라 : 빗사람이 손으로써 몸을 조케하야 주금만 곱디 아니니라 하고 <烈  
二 88b>
- 아니더라 : 혼 번도 제 지피 오디 아니더라 <續孝 25b>
- 아니라 : 아온 망쌍이 주검죽디 아니라 혼대 <孝七 32b> 내 이 아히를 덕 니  
블 주리 아니라 <續烈 20b> 슬퍼 아니 먹논디 아니라 <三烈 6b>
- 아니려 : 왜적을 만나 더러이디 아니려 <烈六 46b>
- 아니리 : 듣논 사람이 눈을 흘리디 아니리 업더라 <孝七 62b> 므을사람이 는  
겨 우디 아니리 업더라 <孝一 32b>
- 아니리라 : 적의 더러인 배 되디 아니리라 혼대 <烈八 7b>
- 아니며 : 소곰 장을 먹디 아니며 <孝六 25b> 고기를 먹디 아니며 <烈七 68b>
- 아니면 : 그리 아니면 비록 주저도 졸디 아니호리라 <烈四 87b>
- 아니미 : 것덜려 패티 아니미 업더라 <忠一 41b>
- 아니몰 : 죽디 아니몰 어드니라 <烈一 11b>
- 아닌가 : 사람이 음식을 주면 그 조티 아닌가 두려 먹디 아니하야 <烈七 71b>
- 아닌느니라 : 스나히 겨질의 손애 죽디 아닌느니라 하더라 <孝六 20b>
- 아닌대 : 므춤내 굴티 아닌대 <烈八 85b> 구디 거스려 쫓디 아닌대 <烈五  
85b>
- 아닌덕 : 그 안해 신지 지아비 명 아닌덕 <孝七 14b> 그 아비 명 아닌덕 주  
그를 설워 <孝四 5b> 지아비 려 아닌덕 주그드로써 <烈二 30b>
- 아닐 : 출히 주저도 졸디 아닐 거시니 <烈七 61b> 도적이 그 굴티 아닐 줄알  
고 <烈四 19b> 내 너를 쫓디 아닐 거시니 <忠一 45b>



아닐던대 : 만일의 서로 저버리디 아닐던대 <烈七 87b>

아님이 : 죽식이 홀로 아님이 믿음에 편안하랴 하고 <孝七 44b>

이 ‘아니’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한 문헌에도 약 27개의 활용형이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한편 이 용례의 제시를 어느 순서로 배열해야 할 것인가도 면밀히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가능한 한, 문헌의 간행 순서대로 배열하면 이 어휘가 어느 시기부터 사용되었는가를 알 수 있게 될 것이며, 그 이후의 변화도 이 예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 13. 出典 略號의 表示

각 표제어에 대한 용례의 제시는 필연적으로 그 출처가 밝혀져야 할 것이다. 이 출처는 곧 문헌명과 그 張次가 될 것이다. 한 종류의 문헌도 初刊本, 重刊本, 覆刻本 등 다양한 異本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전의 앞에 보이게 되는 凡例(또는 일러두기)에 그 정확한 정보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문헌명과 간행 연도만으로서서는 그 문헌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所藏處(가능한 한 圖書番號까지도)나 刊行地도 밝혀 줄 것이 요망된다. 그리고 그 문헌의 장차도 풀이말에서 통일시켜야 할 것이다. 예컨대 어느 문헌은 원책의 장차를 표시해 주는가 하면, 어느 문헌은 影印本の 페이지를 표시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sup>12)</sup>

한편 그 출전의 장차도, 몇 장이라고만 표시하지 말고 그 장의 앞쪽인가 뒤쪽인가도 표시해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더 욕심을 낸다면 몇 행까지도 표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풀이말에서 OED(The Oxford English Dictionary)처럼 출전 문헌의 간행 연도를 밝혀 주는 일은 그 어휘 쓰임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전의 분량이 방대해지는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 그러므로 범례에서만 문헌의 간행 연도를 밝혀 주는 종래 고어 사전의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12) ‘李朝語 辭典’에서는 다른 문헌은 원책의 張次를 표시하였으면서도, ‘漢清文 鑑’ 등의 경우는 영인본의 ‘페이지를 표시하고 있다.

## 14. 結 語

이 글에서는 고어 사전 및 방언 사전을 활용하면서 필자가 평소 생각한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전학 이론을 연구한 적이 없는 필자의 의견은 사전학을 전공한 사람들이나 사전들을 더욱 많이 다양한 방법으로 편찬, 활용한 경험이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의하여 수정되거나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국어 사전의 편찬 방법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최근의 상황은 고어 사전의 편찬을 위해서도 매우 고무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현대 국어의 어휘 사전에 대한 논의와 함께 고어 사전의 편찬을 위한 방법론 또한 광범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져야만이 앞으로의 고어 사전 편찬이나 현대 국어 사전에서의 고어 어휘에 대한 풀이가 만족할 만한 단계에 이르게 될 것이다.

고어 사전에 등재되는 고어 어휘나 현대 국어 사전에 등재되는 고어 어휘의 풀이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일은 실제의 사전을 편찬하는 일에 비하면 매우 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사전 이용자가 고어 어휘에서 찾으려 하는 정보가 무엇이며, 또 그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활용할 것인가를 검토하여 본다면, 그리고 외국에서 이미 편찬된 고어 사전, 시대별 사전, 현대어 사전 등을 면밀히 살펴본다면, 한국어 고어 사전의 표제어나, 현대 국어 사전에 보이는 고어 어휘의 풀이말에 담을 내용은 무엇이며, 어떠한 형식으로 기술해야 할 것인가는 어느 정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내용을 담을 수 있는 학문적, 실증적 자료들이 과연 마련되어 있는가 하는 점이다. 그 대답은 안타깝게도 아직 부정적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 제시된 사항들을 만족시키는 한국어 고어 사전이나 현대 한국어 사전이 당장 편찬될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 또한 매우 부정적이다. 혹자는 고어 사전의 편찬이 설령 어려운 작업이라 하더라도 컴퓨터의 발달로 무척 용이해졌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작업 과정이 쉬워졌다는 의미이지 그 해석이나 설명이 쉬워졌다는 것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그 풀이는 컴퓨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비록 만족스럽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고어 사전들을 이미 가지고 있다. 이것을 보완하는 작업을 게을리하지 않는 일이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라고 생각한다.

# 참 고 문 헌

- 南廣祐(1960), 古語辭典, 東亞出版社.
- 남기섬(1988), 국어 사전의 현황과 그 편찬 방식에 대하여, 사전편찬학연구 제 1집.
- 方鍾鉉(1946), 古語 材料 辭典(前集), 東省社.
- (1947), 古語 材料 辭典(後集), 東省社.
- 沈在箕(1987), 國語 辭典에서의 뜻풀이, 어학연구 제23권 제 1호.
- 安三煥(1988), 독일 '그림사전'의 편찬 과정과 특성, 사전편찬학연구 제 1집.
- 劉昌惇(1964), 李朝語 辭典, 延世大學校 出版部.
- (1971), 語彙史 研究, 宣明文化社.
- 이기동(1989), 사전 뜻풀이의 검토, 사전편찬학연구 제 2집.
- 이기문(1991), 國語 語彙史 研究, 東亞出版社.
- 李秉根(1986), 國語 辭典 編纂의 歷史, 국어생활 7.
- 이상섭(1988), '옥스포드 영어 사전'의 편찬 원칙과 형성 과정, 사전편찬학연구 제 1집.
- (1990), 현대 사전 편찬학의 이론과 실제, 사전편찬학연구 제 3집.
- 이상춘(1949), 조선 옛말 사전, 을유문화사.
- 이영철(1953), 옛말 사전, 을유문화사.
- 이익환(1989), 어휘의 의미 변천과 사전, 사전편찬학연구 제 2집.
- 李賢熙(1991), 15세기 국어 사전 편찬을 위한 기초적 연구(I), 周時經學報 제 7집.
- 鄭泰鎭·金炳濟(1948), 朝鮮 古語 方言 辭典, 一成堂書店.
- 鄭熙俊(1949), 朝鮮 古語 辭典, 東邦文化社.
- 조재수(1984), 국어 사전 편찬론, 과학사.
- 지춘수(1969), 고어 사전 주석에 있어서의 몇 가지 문제점(I)(II), 한글 143, 144.
- 한재영(1989), 15세기 국어 사전 편찬에 관한 몇 가지, 어학연구 제25권 제 3호.
- 홍재성(1988), 현대 한국어 사전과 자동사/타동사 용법의 구분, 사전편찬학연구 제 1집.
- (1989), 한국어 사전에서의 동사 항목의 기술과 통사 정보, 사전편찬학연구 제 2집.
- (1990), 한국어 자동사/타동사 구문의 구별과 사전, 사전편찬학연구 제 3집.